

LG화학, 100대 자동차부품기업 선정

Automotive News, 국내기업 4곳 포함 ... 1위 일본 Denso에 2위 Bosch

LG화학이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Automotive News가 200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LG화학(6위)과 함께 현대모비스(12위), 만도(61위), 현대위아(65위) 등 국내기업 4곳이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기업과 GM, 포드(Ford) 등에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기로 한 점을 반영해 처음으로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 분류됐다.

LG화학은 2009년 매출 13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현대모비스는 112억9000만달러로 1년 만에 19위에서 12위로 7계단 상승했다.

만도는 21억3000만달러로 12계단 뛰었고, 19억달러를 기록한 현대위아는 처음으로 100대 기업 명단에 등재됐다.

1위는 287억3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 Denso가 차지했고, 독일 Bosch(256억1000만달러)가 2위에 랭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0>